

居喪祭享歌



[해제]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는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다.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은 책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을 모아 놓은 가사집이다. 이 책에는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를 비롯하여,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는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다.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은 책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을 모아 놓은 가사집이다. 이 책에는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를 비롯하여, <교우가>, <근부가>, <대효가>, <사친가> 등 총 28편의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는 ‘거상(居喪)’과 ‘제향(祭享)’ 시 지켜야만 하는 바른 예의풍속에 대해 노래한 작품으로 교훈가사에 속한다. 즉 부모님 상중(喪中)에 있을 때의 올바른 처신과, 제사(祭祀)를 모실 때 행해야 하는 바른 예법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 작품 전반부에서는 부모거상(父母居喪) 때에 삼가야만 하는 일들을 자세히 열거한 뒤, 근세(近世)에는 예의범절에 관한 풍속(風俗)이 무너져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깊이 한탄한다. 후반부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과 마음가짐에 자세히 설명한 뒤, 부모님의 은덕은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으므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당부로 작품을 마무리 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 ‘제향(祭享)’에 관한 부분은 『소학(小學)』의 「명륜제이(明倫第二)」 편 중 ‘祭儀(제 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소학(小學)』을 가사체로 풀어 씀으로써 작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父母께서 有疾하사 飲藥을 하시거던
 子息이 묻저 嘗味하며 告天至誠 비러보되
 疾病이 回春커던 도로예되로 하여보시

七. 謹身歌

謹身하시 謹身하시 孝子난 謹身하시
 父在할제 其志을보고 父沒할제 其行을보니
 父之道을 三年을 無改라야 可孝며
 所行함이 不然하면 孝行을 不得이라
 父母께서 雖沒이나 將次에 爲善함에
 父母께 命名시침을 生覺하야 果端하며
 將次에 不善함에 父母께 羞辱시침을
 生覺하야 果端말시 孝子난 謹身코저

居喪祭享歌

哀呼흠다 父母居喪 누가아니 當하랴
 嚴肅흠다 父母祭享 누가아니 悽惶하랴
 父母之喪을 當하거던 既殯하고 食粥하고
 齊衰之喪에난 疏食하며 水飲하고

菜果난 不食하며 三虞祭을 지낸후난
菜果을 食之하며 醯醬을 食之하고
卒哭祭을 지닌후난 肉汁乾肉을 食之하되
珍饌이며 盛羞을 放恣이 不食하며
與人과 燕樂말며 禫祭을 지닌후난
飲酒하며 食肉호되 만일 禫祭之前에
事業에 極勞하여 己身을 不堪할제난
一盃호되 無色하며 不勞者난 不飲하라
五十以上 되난이난 血氣가 旣衰어시던
酒肉으로 資賴하되 扶養者는 不然이라
酒을始飲 하난者난 醴酒을 先飲하고
肉을始食 하난者난 乾肉을 先食하고
古人은 居喪에난 公然이 食肉하며
飲酒흥이 업슴은 一片心의 孝誠인디
近世에 流俗이蔽하여 居喪에 飲酒흥이
平日과 無異하고 相從하여 宴集하며
靦然이 無愧어던 衆人도 무던이여겨
恠이여기지 아니하니 禮俗이 蔽之흥을
喪禮을 삼나니 孝道之誠을 어이하리
鄙野의 사람보소 初喪에 未歛時에
春黨과 賓客덜이 酒肉飲食을 가져와
慰勞을 하거던 主人亦是 스스로
酒肉珍饌을 갖초와 勸飲하여 醉하되
飲食을 連日하고 及葬히도 如此하며
甚한者는 初喪에 作樂으로 娛尸하고
及殯하며 塋葬할제 風流로써 輻車을
引導하고 號泣하며 乘喪하여 婚姻하니
슬프다 習俗의難變과 愚人의 難曉之性이여
東方에 禮義風俗을 見聞흥이 업섯는가
居喪에 聽樂과 嫁娶을 하난者난
나라에 正法잇스니 이난다시 勿論이라
君子난 居喪흥에 三日을 不怠하며
三月을 不解하며 期年을 悲哀하며
三年을 근심하며 齒을 不見하니
이난大孝 하난子라 居喪에 中門벗게
樸陋之室을 擇하여 丈夫난 喪次하고
斬衰之喪에난 苫에서 枕塊에 자며
經帶을 不脫하며 與人으로 不坐하고

婦人난 中門之內에 別室에서 잇서
 帷帳과 衾褥에 華麗之物을 撤去하고
 男子난 無故어던 中門에 不入하며
 婦人난 男子喪次에 輒忽이 不至하며
 만일 有疾病어던 重病에난 服藥하되
 輕病에난 不服하소 出行흥은 不當하니
 만일喪事에 有故하야 不得已에 出行하거던
 樸車馬을 乘하고 布로 鞍轡을 싸며
 巫覡人과 符章을 言議흥을 崇拜하리
 다 妖妄之事니라 父母體魄을 成墳하고
 萬年幽宅 安寧한가 霜露가 旣降어던
 君子난 履之하고 悽愴之心을 두나니
 其寒을 不言터라 雨露가 旣濡어던
 君子난 履之하고 怵惕之心을 두나니
 其溫을 不言하되 如見將之 하더라
 祭祀라 하난것은 夫婦가 親이하며
 外內之官을 갖추바니 官備어던 具備라
 祭祀흥에 반다시 몸으로 親莅하야
 正誠으로 하시오되 有故어던 使人하며
 內에齊戒을 致하고 外에齊戒을 散하야
 齊戒하난 날에난 그居處을 生覺하며
 그笑語을 生覺하며 그志意을 生覺하며
 그所樂을 生覺하며 그所嗜을 生覺하야
 齊戒하난 三日에난 그爲하야 齊戒하던
 바을 見而親熟하며 祭祀하난 날에난
 入廟하야 儼然이 그神位을 有見하며
 周旋하며 出入흥에 肅然이 그容聲을
 聞之흥에 잇시며 出戶하야 聽흥에
 愴然이 그嘆聲을 聞之흥에 잇시며
 是故로 先王의孝난 顏色을 눈에不忘하며
 音聲을 귀에不絶하며 父母의 心志嗜欲을
 마음에 不忘할거시니 致愛흥을 生覺하면
 生存한 듯하고 正誠을 至極하면
 顯著하게 되나니 存著한 듯흥을
 自心에 不忘어던엇지 恭敬치 아니할스
 君子난 雖貧이나 祭器을 不賣하며
 身이 雖寒이나 祭服을 不衣하며
 宮室을 지움에 丘木을 不斬하며

祭器을 不假하니 祭器을 未成어던
燕器을 不造하고 祭器을 具備터라
父母恩德을 生覺하면 昊天이 罔極이라
禽獸도 報恩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九. 知孝歌

世上에 子弟더라 孝親之道을 아라보식
身體이며 髮膚난 父母께 바다온것이니
敢이毀傷치 아니흠이 孝道의 始初니라
立身하야 行道하고 後世에 揚名흠이
父母을 顯著케되니 이난孝道의 終末이라
愛親을 하난者난 敢이人을 不惡하고
敬親을 하난者난 敢이人을 不慢하니
愛之敬之 흠을 事親흠에 盡하면
德으로 가라침이 百姓의게 加하야
四海에 法이되니 이난天子 孝道니라

[현대역]

부모(父母)께서 유질(有疾)하사 음약(飲藥)을 하시거든
자식(子息)이 먼저 상미(嘗味)하며 고천지성(告天至誠) 빌어보되
질병(疾病)이 회춘(回春)23커든 도로 옛날대로 하여 보세

七. 근신가(謹身歌)

근신(謹身)1하세 근신(謹身)하세 효자(孝子)는 근신(謹身)하세
부재(父在)할 제 기지(其志)를 보고 부몰(父沒)할 제 기행(其行)을 보니2
부지도(父之道)를 삼년(三年)을 무개(無改)라야 가효(可孝)며3
소행(所行)4함이 불연(不然)5하면 효행(孝行)을 부득(不得)6이라
부모(父母)께서 수몰(雖沒)이나7 장차(將次)에 위선(爲善)8함에
부모(父母)께 영명(命名)9 끼침을 생각(生覺)하여 과단(果端)하며
장차(將次)에 불선(不善)10함에 부모(父母)께 수욕(羞辱)11 끼침을
생각(生覺)하여 과단(果端) 말세 효자(孝子)는 근신(謹身)하고저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

애호(哀呼)1하다 부모거상(父母居喪)2 누가 아니 당(當)하라
엄숙(嚴肅)3하다 부모제향(父母祭享)4 누가 아니 처량(悽愴)하라
부모(父母)님의 상(喪)을 당(當)하거든 빈소(殯所)에 모신 뉘 죽(粥)을 먹고
자취(齊衰)5의 상(喪)에는 소식(疏食)6하며 물을 마시고
나물과 과일은 먹지 않으며 삼우제(三虞祭)7를 지낸 후엔
채과(菜果)8를 먹고 혜장(醯醬)9을 먹고
졸곡제(卒哭祭)10를 지낸 뒤엔 육즙건육(肉汁乾肉)11을 먹되
진찬(珍饌)12이며 성수(盛羞)13를 방자(放恣)하게14 먹지 아니하며
여인(與人)과15 연악(燕樂)16을 말며 담제(禫祭)17를 지낸 뒤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만일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前)에
사업(事業)에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이 불감(不堪)18할 때는
한 잔 마시되 부끄러워하며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마시지 말라
나이가 오십 이상 되는 사람은 혈기(血氣)가 쇠(衰)하여 없어지거든
술과 고기로 자뢰(資賴)19하되 부양자(扶養者)20는 불연(不然)21이라
술을 처음으로 마시는 자(者)는 예주(醴酒)22를 먼저 마시고
고기를 처음 먹는 자(者)는 건육(乾肉)23을 먼저 먹고
고인(古人)24들이 거상(居喪)25에는 공연(公然)히26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심이 없음은 일편심(一片心)27의 효성(孝誠)인데
근세(近世)에 유속(流俗)28이 가려 막혀 거상(居喪)에 술을 마심이
평일(平日)과 차이가 없고 상종(相從)29하여 연집(宴集)30하며
전연(靦然)31히 무괴(無愧)32어도 못사람들이 무던히 여겨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예속(禮俗)33이 막는 것을
 상례(喪禮)34로 삼으니 효도지성(孝道之誠)을 어이 하리
 비야(鄙野)35의 사람 보소 초상(初喪)36에 미렴시(未斂時)37에
 춘당(春黨)과 빈객(賓客)38들이 술과 고기, 음식을 가져와
 위로(慰勞)를 하거든 주인(主人) 역시(亦是) 스스로
 술과 고기, 진찬(珍饌)39을 갖추어 권음(勸飲)40하여 취(醉)하되
 음식(飲食)을 연일(連日)41하고 장사(葬事)42 지냄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이 하며
 심(甚)한 자(者)는 초상(初喪)43에 작악(作樂)44으로 오시(娛尸)45하고
 영(殮)46하며 영장(塋葬)47할 때 풍류(風流)로써 이거(輻車)48를
 인도(引導)하고 호읍(號泣)49하며 상(喪)을 당하여 혼인(婚姻)하니
 슬프다 습속(習俗)50의 난변(難變)51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난효지성(難曉之性)52이여
 동방(東方)의 예의풍속(禮義風俗)을 보고 들은 적이 없었는가
 거상(居喪)53에 음악을 듣고 가취(嫁娶)54를 하는 자(者)는
 나라에 정법(正法) 있으니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음이라
 군자(君子)는 거상(居喪)함에 삼일(三日)을 불태(不怠)55하며
 삼 개월을 불해(不解)56하며 기년(期年)57을 비애(悲哀)58하며
 삼년(三年)을 근심하며 치아(齒牙)를 보지 아니하니
 이는 대효(大孝)59하는 자식이라 거상(居喪)에 중문(中門)60 밖에
 박루지실(樸陋之室)61을 택(擇)하여 장부(丈夫)는 상차(喪次)62하고
 참취지상(斬衰之喪)63에는 점(苫)64에서 침괴(枕塊)65하여 자며
 질대(經帶)66를 벗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부인(婦人)은 중문 안의 별실(別室)에서 거처하며
 유장(帷帳)67과 금욕(衾褥)68에 화려(華麗)한 물건을 철거(撤去)하고
 남자(男子)는 이유가 없거든 중문(中門)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부인(婦人)은 남자(男子) 상차(喪次)69에 첩홀(輒忽)70히 가지 않으며
 만일 질병이 있거든 중병(重病)에는 약(藥)을 먹되
 가벼운 병(病)에는 약을 먹지 마소 외출하는 것은 부당(不當)71하니
 만일 상사(喪事)에 이유가 있어 부득이(不得已)하게 외출하거든
 박거마(樸車馬)72를 타고 베로 안비(鞍轡)73를 싸며
 무격인(巫覡人)74과 부장(符章)75을 희논하여 말하는 것을 숭배(崇拜)하리
 모두 다 요망(妖妄)한 일이니라 부모(父母)님 체백(體魄)76을 성분(成墳)77하고
 만년유택(萬年幽宅)78 안녕(安寧)한가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렸거든
 군자(君子)는 그것을 밟고 처창지심(悽愴之心)79을 두나니
 그 차가움을 말하지 않더라 비와 이슬이 이미 적셨거든
 군자(君子)는 그것을 밟고 출척지심(愴惕之心)80을 두나니
 그 따듯함을 말하지 않되 여견장지(如見將之)81 하더라
 제사(祭祀)라 하는 것은 부부(夫婦)가 친(親)히82 하며
 외내지관(外內之官)83을 갖춘 것으로 관(官)이 갖추지거든 구비(具備)84한 것이라

제사(祭祀) 지냄에 반드시 몸으로 친이(親莅)85하야
 정성(正誠)으로 하되 유고(有故)86면 다른 사람을 시키며
 안에서 치제(致齋)87하고 밖에서 산제(散齋)88하여
 제계(齊戒)89하는 날에는 그 거처(居處)90를 생각(生覺)하며
 그 웃음과 말씀을 생각(生覺)하며 그 뜻을 생각(生覺)하며
 그 좋아하시던 바를 생각(生覺)하며 그 즐기시던 바를 생각(生覺)하면
 제계(齊戒)91한 삼일(三日)만에 그 위하여 제계(齊戒)하던
 분92을 견이친숙(見而親熟)93하며 제사(祭祀)지내는 날에는
 사당에 들어가 우연(優然)이94 그 신위(神位)를 볼 수 있으며
 주선(周旋)95하며 출입(出入)함에 숙연(肅然)96히 그 용성(容聲)97을
 들음이 있으며 문을 나오며 들음에
 개연(愴然)98히 그 탄성(嘆聲)99을 들음이 있으며
 이런 까닭으로 선왕(先王)100의 효(孝)는 안색(顏色)을 눈에서 잊지 않으며
 음성(音聲)을 귀에서 끊이지 않으며 부모(父母)의 심지기욕(心志嗜欲)101을
 마음에서 잊지 아니할 것이니 지극한 사랑을 생각(生覺)하면
 생존(生存)한 듯하고 정성(正誠)을 지극(至極)하게 하면
 현저(顯著)102하게 되니 존저(存著)103한 듯함을
 스스로 마음에 잊지 않으면 어찌 공경(恭敬)하지 아니할까
 군자(君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제기(祭器)104를 팔지 않고
 몸이 비록 춥더라도 제복(祭服)105을 입지 않으며
 집 건물을 지을 때 구목(丘木)106을 베지 아니하며
 제기(祭器)를 빌리지 아니하니 제기(祭器)를 장만하지 못하였거든
 연기(燕器)107를 만들지 않고 제기(祭器)를 구비(具備)하더라
 부모(父母) 은덕(恩德)을 생각(生覺)하면 황천망극(昊天罔極)108이라
 금수(禽獸)도 은혜를 갚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9. 지효가(知孝歌)

세상에 자제(子弟)1들아 효친지도(孝親之道)2를 알아보세
 신체(身體)이며 발부(髮膚)3는 부모(父母)께 받아온 것이니
 감히 훼손(毀傷)4치 아니함이 효도(孝道)의 시초(始初)이니라
 입신(立身)하야 행도(行道)하고 후세(後世)에 양명(揚名)함이5
 부모(父母)를 현저(顯著)6하게 되니 이는 효도(孝道)이 마지막[終末]이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악행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거만하게 하지 않으니
 사랑하고 공경함하며 사친(事親)7함에 다하면
 덕(德)으로 가르침이 백성(百姓)에게 더하여
 사해(四海)8에 법(法)이 되니 이는 천자(天子)9의 효도(孝道)이니라

[각주]

- 1) 근신(謹身) : 몸차림이나 행동을 삼감.
- 2) 부재(父在)할 제 기지(其志)를 보고 부몰(父沒)할 제 기행(其行)을 보니 : 부모가 살아계실 땐 그 뜻을 살피고, 돌아가시면 그 행위를 살피니.
- 23) 회춘(回春) : 봄이 돌아옴. 늙은이의 중한 병이 낫고 다시 건강(健康)을 회복(回復)함. 다시 젊어짐. 침식력(浸蝕力)이 약(弱)해졌던 노년기(老年期), 장년기(壯年期)의 지각(地殼)이나 하천(河川)이 다시 침식력(浸蝕力)을 회복(回復)하여 유년기(幼年期)의 성질(性質)을 띠는 현상(現象).
- 3) 부지도(父之道)를 삼년(三年)을 무개(無改)라야 가효(可孝)며 : 3년을 넘겨도 선친의 길을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이를 수 있으며
- 4) 소행(所行) : 행한 바.
- 5) 불연(不然) : 그렇지 아니함.
- 6) 부득(不得) : 얻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 7) 수몰(雖沒)이나 : 비록 돌아가셨으나.
- 8) 위선(爲善) : 선한 일을 행하다.
- 9) 영명(令名) : 좋은 명성이나 명예.
- 10) 불선(不善) : 선한 일을 행하지 않다.
- 11) 수욕(羞辱) : 수치와 모욕.
- 1) 애호(哀呼) : 슬프게 하소연함.
- 2) 부모거상(父母居喪) : 부모님 상중(喪中)에 있음.
- 3) 엄숙(嚴肅) : 분위기나 의식 따위가 장엄하고 정숙함.
- 4) 부모제향(父母祭享) : 부모님의 제사. 제향(祭享)은 제사(祭祀)의 높임말.
- 5) 자취(齊衰) : 거친 생마포로 아랫단을 접어서 지은 상복, 곧 자취복(齊衰服). 상례(喪禮)에서 규정한 오복제(五服制) 중의 하나. 본래 어머니 상을 당해서 입는 상복임. 재취(齋衰)와 같은 말.
- 6) 소식(疏食) : 거친 음식을 먹음.
- 7) 삼우제(三虞祭) :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함.
- 8) 채과(菜果) : 나물과 과일.
- 9) 혜장(醯醬) : 젓갈.
- 10) 졸곡제(卒哭祭) :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냄.
- 11) 육즙건육(肉汁乾肉) : 쇠고기를 다져 삶아 찌낸 국물과, 말린 고기.
- 12) 진찬(珍饌) : 진귀하고 맛이 좋은 음식.
- 13) 성수(盛羞) : 맛있는 음식.
- 14) 방자(放恣)하게 :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 15) 여인(與人)과 : 다른 사람들과.
- 16) 연악(燕樂) : 연회에서 연주하는 음악.
- 17) 담제(禫祭) :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냄.

- 18) 불감(不堪) : 견디어 내지 못함.
- 19) 자뢰(資賴) : 밑천으로 삼음.
- 20) 부양자(扶養者) :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生活)을 돌봄.
- 21) 불연(不然) : 그렇지 않음.
- 22) 예주(醴酒) : 맛이 좋은 술. 또는 단술.
- 23) 건육(乾肉) : 말린 고기.
- 24) 고인(古人) : 옛 사람.
- 25) 거상(居喪) : 상중(喪中)에 있음.
- 26) 공연(公然)히 :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 27) 일편심(一片心) : 한 조각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은 마음을 이르는 말.
- 28) 유속(流俗) :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풍속.
- 29) 상종(相從) :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냄.
- 30) 연집(宴集) : 잔치.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김.
- 31) 전연(靦然) : 부끄러워서 무안해 하는 모양.
- 32) 무괴(無愧) :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침이 없음.
- 33) 예속(禮俗) : 예의범절에 관한 풍속.
- 34) 상례(喪禮) : 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
- 35) 비야(鄙野) : 문화 수준이 낮은 시골구석.
- 36) 초상(初喪) :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일.
- 37) 미렴시(未斂時) : 아직 염(殮)을 하지 않은 때.
- 38) 빈객(賓客) : 귀한 손님.
- 39) 진찬(珍饌) : 진귀하고 맛이 좋은 음식.
- 40) 권음(勸飲) : 마실 것을 권함.
- 41) 연일(連日) : 여러 날을 계속함.
- 42) 장사(葬事) :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 43) 초상(初喪) :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일.
- 44) 작악(作樂) : 음악을 만듦.
- 45) 오시(娛尸) : 시체를 희롱함.
- 46) 염(殮) : 시신을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베나 이불 따위로 싸는 일.
- 47) 영장(塋葬) : 죽은 사람을 무덤에 매장함. '장사(葬事)'와 같은 말.
- 48) 이거(輜車) : 상여(喪輿)를 실은 수레.
- 49) 호읍(號泣) :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울. 또는, 그 울음.
- 50) 습속(習俗) : 습관이 된 풍속.
- 51) 난변(難變) : 바꾸기 어려움. 변하기 어려움.
- 52) 난효지성(難曉之性) : 깨닫기 어려운 성품.
- 53) 거상(居喪) : 상중(喪中)에 있음.
- 54) 가취(嫁娶) : 시집가고 장가듦. 결혼과 같은 말.
- 55) 불태(不怠) : 게으르지 아니함.

- 56) 불해(不鮮) : 게으르지 아니함.
- 57) 기년(期年) : 만으로 일 년이 되는 날. 또는 만 일 년.
- 58) 비애(悲哀) : 슬퍼하고 서러워 함.
- 59) 대효(大孝) : 지극한 효도. 또는 지극한 효자.
- 60) 중문(中門) : 가운데뜰로 들어가는 대문. 대문 안에 또 세운 문.
- 61) 박루지실(樸陋之室) : 수수하고 누추한 건물, 거처.
- 62) 상차(喪次) : 상중(喪中)에 상주(喪主)가 거처하며 집상(執喪)하는 처소.
- 63) 참최지상(斬衰之喪) : 참최의 상.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 참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을 가리킴.
- 64) 점(苫) : 거적자리.
- 65) 침괴(枕塊) : 흙덩이를 베개로 함.
- 66) 질대(經帶)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맨 띠와 허리에 두르는 띠.
- 67) 유장(帷帳) : 천을 여러 폭으로 이어서 빙 둘러치는 장막. 휘장과 같은 말.
- 68) 금욕(衾褥) : 이불과 요.
- 69) 상차(喪次) : 상중(喪中)에 상주(喪主)가 거처하며 집상(執喪)하는 처소.
- 70) 첩홀(輒忽) : 문득, 갑자기.
- 71) 부당(不當) : 이치에 맞지 아니함.
- 72) 박거마(樸車馬) : 수수한 수레와 말.
- 73) 안비(鞍轡) : 안장과 고삐.
- 74) 무격인(巫覡人) : 무당과 박수. 즉 남녀무당.
- 75) 부장(符章) : 부적, 주장(呪章)을 가리킴.
- 76) 체백(體魄) : ①죽은 지 오래된 송장. 또는 땅속에 묻은 송장. ②몸이나 육체.
- 77) 성분(成墳) :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듦.
- 78) 만년유택(萬年幽宅) : 무덤.
- 79) 처창지심(悽愴之心) : 몹시 구슬프고 애달픈 마음.
- 80) 출척지심(怵惕之心) :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 81) 여견장지(如見將之) : 장차 그것을 보는 것 같이 함.
- 82) 친(親)히 : 직접.
- 83) 외내지관(外內之官) : 밖과 안의 관(官).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는 것.
- 84) 구비(具備) :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
- 85) 친이(親莅) : 몸소 임함.
- 86) 유고(有故)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 87) 치제(致齋) : 제사를 앞두고 3일 동안 정전(正殿)에 있으면서 오로지 제사의 대상인 어버이의 일을 생각하는 것.
- 88) 산제(散齋) : 제사 지내기 10일 전부터 7일 동안 부정이나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일을 경계하는 것.
- 89) 제계(齊戒)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감.
- 90) 그 거처(居處) : 돌아가신 부모님의 거처를 뜻함.
- 91) 제계(齊戒)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감.

- 92) 그 위하여 제계(齊戒)하던 분 : 본문에서는 부모님을 뜻함.
- 93) 견이친숙(見而親熟) : 보고 친하여 익숙하게 됨.
- 94) 우연(優然)이 : 어렵듯이.
- 95) 주선(周旋) :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 96) 숙연(肅然) : 고요하고 엄숙함.
- 97) 용성(容聲) : 모습과 소리. 또는 움직이는 소리.
- 98) 개연(愴然) : 억울하고 원통하여 몹시 분함.
- 99) 탄성(嘆聲) : 탄식하는 소리.
- 100) 선왕(先王) : 선대의 임금. 또는 옛날의 어진 임금.
- 101) 심지기욕(心志嗜欲) : 마음과 뜻과 즐기던 것과 하고자 하시던 것.
- 102) 현저(顯著) : 뚜렷이 드러나 있음.
- 103) 존저(存著) : 존재하고 나타남.
- 104) 제기(祭器) : 제사에 쓰는 그릇.
- 105) 제복(祭服) : 제사 지낼 때 입는 예복.
- 106) 구목(丘木) : 무덤가에 있는 나무.
- 1) 자제(子弟) : ①남의 아들의 높임말 ②남의 집안의 젊은 사람을 일컫는 말.
- 2) 효친지도(孝親之道) :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방법.
- 3) 발부(髮膚) : 머리털과 살.
- 107) 연기(燕器) : 잔치에 쓰는 그릇. 또는 평상시에 쓰는 그릇.
- 108) 황천망극(昊天罔極) : 크고 넓은 하늘처럼 한이 없음.
- 4) 훼손(毀傷) : 몸에 상처를 냄.
- 5) 입신행도양명후세(立身行道揚名後世) : 몸을 바로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리는 것.
- 6) 현저(顯著) : 뚜렷이 심하게 드러남.드러나서 두드러짐.
- 7) 사친(事親) : 부모를 섬김.
- 8) 사해(四海) : 사해의 안
- 9) 천자(天子) :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이.곧 황제.또는 하느님의 아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